

목포권

꿈나무에 '산불진화 헬기' 공개합니다



산림항공관리소 영암지소

산림항공관리소 영암지소는 어린 이 날을 맞아 100명의 어린이를 초청...

되어보고, 산불 진화장비를 다뤄보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고속도, 통행료 과다징수 논란

무안 일로 IC ~ 목포요금소 0.5km 구간 3km분 요금 징수...인근 주민들 강력 반발

한국도로공사가 무안군 일로읍 주민들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무안군 일로읍과 청계읍 주민들에 따르면 일로 IC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까지는 겨우 0.5km에 지나지 않는데도 일로 IC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목포IC까지의 6.2km가운데 3km의 요금을 추가로 계산하는 등 과다 징수하고 있다.

이날 통수식을 가진 마산 1공구 연구양수장은 국내 3번째로 큰 규모의 양수장으로 110억원을 투입해 지난 97년 10월에 착공, 2004년 12월에 준공했다.

는 달리 티켓을 받지 않고 도착지에서 요금을 내는 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로 IC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700~800대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과다 징수하는 통행료는 승용차로만 계산해도 하루에 9만1천원으로, 1년에 무려 3천326만여 원에 이른다.

1종인 승용차(km당 40.5원)는 약 121.5원, 5t이하 2종 차량(41.3원)은 123.9원, 버스 등 3종(42.9원)은 128.7원, 화물차 등 5종(68원) 204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로공사가 과다징수한 요금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로 공사가 이처럼 일로IC 진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은 목포 IC나 일로 IC에 요금소를 따로 설치, 운영할 경우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목포요금소에서 목포IC까지는 6.2km이지만 일로IC까지의 실제 통행료는 3km만 계산하고 있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일로읍 주민 김모씨(49)는 "한국도로 공사의 편의주의적 운영으로 목포까지 가는 차량은 6.2km중 3km만 계산, 이익이지만 일로 IC 진출입 차량은 0.5km만 달라고 3km 요금을 내는 것 아니냐"면서 "과다징수한 요금은 환불하고 통행료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지역 단신/

목포경찰 상동지구대 개소식



목포경찰은 24일 오후 경찰서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동지구대 개소식을 가졌다.

목포경찰은 기존 하당지구대 관할구역이 넓은데다 최근 하당지역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 하당지구대 소속의 상동지구대 관할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상동지구대 관할구역의 일부인 하당, 이로, 석련, 대양, 상동 등 10.79km를 관할하며 3만7천400여 명의 주민을 경찰 29명이 3개 순찰팀으로 나누어 담당한다.

목포경찰은 24일 오후 경찰서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동지구대 개소식을 가졌다. 목포경찰은 기존 하당지구대 관할구역이 넓은데다 최근 하당지역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 하당지구대 소속의 상동지구대 관할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상동지구대 관할구역의 일부인 하당, 이로, 석련, 대양, 상동 등 10.79km를 관할하며 3만7천400여 명의 주민을 경찰 29명이 3개 순찰팀으로 나누어 담당한다.

영암 내달 '주부 영어공부방' 개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길자)은 '주부 영어공부방'을 다음달 16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부 영어공부방은 여성들의 자질향상 욕구와 초등학교 영어교육시행에 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기초 생활영어반'을 개설하는 것으로, 강사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료는 월 1만원씩 3만원이며 교재비 50%는 본인부담이다. 강의는 5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2회(화·금) 오전 10시 ~ 12시까지 3개월과정으로 실시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무안 '백년 불교문화원' 개원 범회

무안 백년 불교문화원 개원 범회가 지난 29일 무안 승달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각급 기관장, 신자, 주민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문화원 원장 경훈 스님(약사사 주지)은 "무안을 기점으로 일로읍 10만여 평 백년단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관·민·불교계가 협심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茶聖'의 사상·다도 음미해 볼까!

무안군·추진위 6.4~5일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개최

무안군과 '초의(岫衣)선사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는 "초의 대선사 탄생 제220주년 기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오는 6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삼향면 왕산리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탄생문화제는 풍물길놀이로 시작으로 초의선사 학술 세미나, 세계 차 전시회, 현대의식,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1997년부터 시작한 기념관 건립 등 초의선사 현창사업이 마무리돼 명실상부한 다도

(茶道)의 성지로 조성됐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초의선사 관련 시설과 문화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초선후기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는 1786년(정조 10년) 삼향면 왕산리에서 태어나 15세에 출가해 19세에 대흥사에서 완호스님을 동산 삼향면 왕산리에서 개회한다

초의는 졸골 대흥사에서 경전을 배우고 24세때 강진 다산초당에서 정약옹을 만나 교류했으며 39세에 일지암을 중건해 차 문화를 집대성하고 세수 81세, 법랍 65세인 1866년(고종) 입적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진도 일대 해안선 100년만에 정밀 측량

100여 년 만에 무안~진도 부근 일대 해안선에 대해 정밀측량이 실시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5일 "이번 조사는 해안선 국토의 길이 및 형상을 규명하기 위해 GPS 등 첨단장비를 이용, 무안에서 진도 부근 일대의 해안선 약 400km를 5월부터 11월까지 측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밀측량에서는 갯벌, 모래사

장, 각종 양식장, 오·폐수 유출구, 시설물 등을 파악하는 지리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지역에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포 신항 개발 및 대불공단 등이 위치해 있으며 영산호, 영암호 방조제 등 대규모사업 및 대형조선소 입지로 인한 자연 해안선 유실 및 인공 해안선 축조 등으로 해안선과 갯벌 형상의 변동이 심해 정확한 최신 정보가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풍년농사·무사고 기원 '통수식'

영산강사업단 '마산 1공구 연구양수장'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산강 3-1지구 마산1공구 연구양수장에서 마산면 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농사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 및 통수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통수식을 가진 마산 1공구 연구양수장은 국내 3번째로 큰 규모의 양수장으로 110억원을 투입해 지난 97년 10월에 착공, 2004년 12월에 준공했다.

연구양수장은 지난해부터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일시 위탁경작을 시행하고 있는 1천75ha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준공예정인 마산 2공구 703ha와 산



이2-1,2공구 1천440ha 등에 약 9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수장을 건설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 연구양수장 관련 지역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쌀 350만톤을 생산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홍도간 초쾌속선 운항 무산

목포해양청 '계류시설 미비·안전사고 위험' 불허

신안군 '기존업체 보호 의혹'...행정·민사소송 제기

목포와 천혜의 사계절 해상관광지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간 초쾌속선 투입이 좌절됐다.

쾌속선 투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안군은 면허를 내주지 않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해 마찰이 예상된다.

신안군은 "카니렘마린과 투자협약을 하고 올 상반기에 초쾌속선 1척을 홍도항로에 투입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8

일 목포해양청에 '목포~홍도간 제트호일(초쾌속선) 면허신청'을 했으나 지난 20일 불허처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니렘마린은 상반기 1척, 하반기 2척 등 모두 3척의 여객선을 투입키로 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목포해양청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가 이 항로의 평균 탐재수익률과 계류시설 미비, 과열경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목포해양청의 불허처분 사유가 법을 위반하고 기존업체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항 해운면허 관리요령(제6조)에는 기존 운항 선박 보다 현대화된 선박을 투입하거나 관광항로의 경우 탐재수익률을 따지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해양청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허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 항로는 기존 업체의 독점항로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경쟁이 필요한데도 기존 여객선 6척이 탄력적으로 운항하면 문제가 없다는 해양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여객선이 들어 올 예정인데 불허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돼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조만희기자 wncho@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Lists various numbers and locations.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획. Tel : 062)973-9174, 016-757-8800. 수완·신창·첨단지구 택지·상업용지 중개전문.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지하1층~지상6층, 연건평-2,500평. 종합병원. 엘리베이터 2대, 주차장(150대) 완비.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용한공인중개사. T. (대)682-8911. 원룸, 상가전문. 서구 용암동 원룸(신축) 보충금 3,500/월세 220만 포함.

중영구토개발컨설팅. (해) 011-647-3500. 상가, 점포. 지상동 5층 상가, 대45평. 건110평. 일간주거지역, 20m도로.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상가임대. 1층:약국,금방,안경점. 2층:내과,소아과,아미반후과.